

농사용어 속에 나타난 성서신학(4)

-창 4:1-4-

이 영 재(목사, 전주 화평교회, 구약학 Ph.D)

학자들은 문명의 발상은 농사가 잘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소위 4대문명 발상지 이론이 그것이다. 생산력이 증대하여 도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도시는 인류의 생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사람들은 잉여농산물 덕택에 부(富)가 축적되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도시에 서 문명을 창달했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명의 발상을 인류의 역사에서 경이로운 진보로 해석하며 인류의 미래는 생산력의 증대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들 중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생산력이 증대되면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순과 대립이 해결된다는 꿈을 꾸다. 그러한 꿈 때문에 식량증산과 과학영농이란 사회정책을 정치가들이 설정하고 흙을 쥐어짜는 방법을 과학자들에게 연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생산력 증대라는 인문학의 꿈과 과학자의 성과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1. 가인과 아벨

창 4:1에 소유의 관념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창 4:1).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남자가 자기의 여자 하와를 알았다”가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그 남자가 자기 여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행위를 에둘러 표현한 완곡어법이지만 ‘알다’란 동사 ‘아다’를 사용한 데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묘한 비평이 숨어 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이기적인 사람에게 부부관계조차도 서로를 만족시켜야 하는 욕망과 충족의 끝없는 악순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에게 유익할 때에만 사랑한다. 여자도 남자가 자기에게 잘 해줄 때에만 사랑한다. 이기적인 두 존재가 결합하여 잉태한 아기가 가인이다. 두 사람은 아기를 ‘소득’ 또는 ‘내꺼’라고 불렀다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가인’은 ‘획득/소득’이란 뜻으로 첫 인류에게 소유의 관념이 생겨났음을 가리킨다. 소유의 관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생겨났다. 선악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를 두루 이롭게 하는 섬기는 뜻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낳고 ‘내 것/우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잠시 부모에게 맡긴 생명임을 망각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게 된 것이다. 가인은 죄를 지은 인류가 불행을 향해 내디딘 소유관념의 첫 생산물이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다. ‘아벨’이란 이름은 ‘허무’란 뜻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지은 이름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 바깥에서 쓰라린 체험을 하고 깨달았다는 말이다. 아벨은 허무한 육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 이름에 암시되어 있다.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썼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살았다.

2.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히브리말로 <오베드 아다마>인데 직역하면 ‘흙을 섬기는 자’가 된다. 창 2:5부터 창 2:15을 거쳐 창 3:23에 나온 숙어를 여기서 가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흙을 섬기던’ 그 사람은 이제 없어졌다.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흙에 노동력을 투여하게 되었다. 그 첫 농부가 곧 가인이었다. 가인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흙을 이용했다. 모든 생물을 두루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흙에 자신의 존재를 투여하던 에덴의 농부는 지금 사라지고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흙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에덴바깥의 농부가 생겨났다. 그가 가인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아벨은 ‘양 치는 자였다.’ 히브리말을 직역하면 ‘양을 먹이는 자’<로에 하촌>가 된다. ‘아벨’이란 이름은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말이다. 아벨은 허무한 인생에서 자신의 욕망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려고 했다. 양떼와 더불어 살면서 다른 생물을 먹이고 입히며 두루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창 1:28). 비록 아담의 범죄로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에덴동산의 삶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가인을 농경민의 대표자로, 아벨을 유목민의 대표자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앞뒤 문맥관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종사한 직업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3. 농부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다. 히브리말 <미퍼리 하아다마>을 직역하면 ‘그 흙의 열매들 중에서’ 제물<민하>를 가져왔다. 여기서도 ‘그 흙’<하아다마>이 문제가 된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지은 농산물을 가리킨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니 하나님마저도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흙이 이용수단으로 전

락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용가치로 전락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복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가인의 제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맏배(첫 새끼, 버코르)와 그 기름을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은 짐승의 맏배를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신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출 13:2). 아벨은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어서 제물을 골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데 아벨은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만물이 다 기뻐하게 된다. 아벨은 모든 피조물을 두루 섬기는 존재였음이 그의 제물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다.

나가는 말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 안에 참된 농사의 비법이 적혀 있다. 욕망과 충족의 악순환에서 타락한 농부들이 잉여농산물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고 도시를 창건하였다. 성공한 농부는 흙을 버리고 도시 안으로 이주하였다. 권력자 농부는 많은 다른 농부를 노예로 거느리는 데 성공한다. 이것이 도시문명의 발상기에 나타난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다. 농부가 타락하였으니 교회는 어린양 희생제물로 드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농부가 예텐으로 회복하였음을 선포해야 한다. 예수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에서 농부의 타락은 극복되었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농촌사회를 새롭고도 아름다운 사회로 일구어 낼 수 있다.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농부인 것이다. ❶